

목포해수청,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

-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 증가 및 태풍·호우 대비 집중 안전관리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부터 8월까지 ‘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’을 수립·시행한다고 알렸다.

여름철(6~8월)은 태풍·호우 등 기상악화, 하계 휴가철에 따른 여객선 이용객의 급증 및 성어기 조업일수 증가로 인해 해양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.

이에 따라, 목포해수청은 구명·소화설비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특히, 휴가철 기간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여객선 이용객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.

아울러, 중대재해 및 인명사고 등에 대비해 항만·부두시설 및 표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여객선터미널 및 국고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도 강화한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목포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철경 (061-280-1640)
		담당자	주무관	조세웅 (061-280-1647)